

스마트콘텐츠 관련 기업 성장 지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성장거점 구축' 거점기관 공모 선정... 국비 4억원 확보

전주시가 4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로 손꼽히는 가상·증강현실(VR·AR)과 미디어파사드 등 스마트콘텐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기금으로 진행되는 '2018 스마트콘텐츠 지역 성장거점 구축' 공모사업에 거점기관

으로 선정, 총 4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스마트 콘텐츠 산업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거점을 구축하고 기업 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사업 주관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2019년까지 총 4

억 8000만원을 투입해 스마트콘텐츠 기업 강소화 지원, 지역 스마트 콘텐츠 제작인프라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스마트 콘텐츠 제작지원,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인 B2C 중심의 마케팅 지원, CT(문화콘

텐츠기술)기업 경쟁력 강화 등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신기술 기반 장르 융합 뉴콘텐츠 확산 기반 마련과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규남 기자

미성년자 친딸 2명 상습 성추행한 40대 친부 구속

미성년자인 친딸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친부 A(43)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친딸인 B(17)양과 C(13)양을 전주시 지역에서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인의 눈을 피해 거실에 누워 있는 딸의 신체를 더듬고 잠을 자고 있던 딸을 깨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큰딸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2차 피해를 우려해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전주시는 지난 23일 혁신도시에 위치한 중동근린공원 일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혁신도시 주민, 민성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코끼리 유치원생들, 한국농수산대학 산림학과·조경학과 학생들, (사)푸른전주운동본부 회원, 애국화조성봉사단원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3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공구 훔쳐 인터넷에 판 30대 덩달

공구를 훔쳐 중고사이트에 판매해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3일 절도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45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모텔 앞에서 인근에 주차돼있던 트럭에서 130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이날까지 10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이고 훔친 공구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삼민 기자

'전주시민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열려

혁신도시 중동근린공원에 300명 참여... 수목 268주 · 초화류 1000본 심어

제73회 식목일을 앞두고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전주시민 나무심기 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혁신도시에 위치한 중동근린공원 일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혁신도시 주민, 민성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코끼리 유치원생들, 한국농수산대학 산림학과·조경학과 학생들, (사)푸른전주운동본부 회원, 애국화조성봉사단원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3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참여한 시민들은 혁신도시 주민들이

자주 찾는 중동근린공원에 팔메나무 28주와 이팝나무 18주, 꽃사과 24주, 산수유 14주 등 주로 꽃을 피우는 나무 5종 268그루와 꽃무릇 1000본을 함께 식재했다.

또한 시와 (사)푸른전주운동본부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 한 나무 갖기, 산불예방 등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 활동도 했다.

향후 도심 내 공원과 녹지공간에 여가와 휴식, 건강과 치유의 숲이 접목한 다양한 테마가 있는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커다란 나무 한 그루는 하루 4사람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매일 공기 1리터의 먼지입자 7000개를 흡수한다. 오늘 시민들과 함께 심은 나무가 자라 미래의 꿈과 희망이 될 것"이라며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가 앞으로 잘 자라도록 잘 가꾸고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어가는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푸드, 친환경 확대·자체인증 결의

500여 출하농가 생산자회 결성... 창립총회 열어

전주푸드 500여 출하농가가 생산자회를 결성, 전주시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전주푸드 출하농가는 다품종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확대하고 자체인증제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오후 1시 전주 시청 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시·도 의원, 전주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500여 전주시 생산자와 가공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주푸드 생산자 다짐대회 및 생산자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행사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생산농가, 가공업체 등이 지난 2년을 결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

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특히 참여 농가들은 친환경농산물 재배 확대와 전주푸드 자체인증제 추진 등 생산자 스스로가 전주푸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품종 다양화, 소비자 위주의 신뢰성 있는 전주푸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지원센터는 전주가금류협회의와 전주급식협의회, 전주시 소상공인협의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주푸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통합지원센터는 전주정보문화 융합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맺었다. /채규남 기자

전주한옥마을 '왕발통' 이용 주의 당부

전주시는 지난 23일 전주한옥마을에서 원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동기를 이용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홍보 및 계도활동을 했다.

전동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의 전동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의거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며 원동기면허증 이상의 소지자만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6세 미만 소년들은 탈 수 없다. 또 이륜차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도 필수적이다.

한편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관광객 대부분이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이

용하거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별다른 제한없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동기 이용시 중앙선 침범, 인도로 통행하는 등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매주 금요일 관광객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준수 계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전주한옥마을 전역이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차량통제자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시와 원산경찰서는 올 하반기부터는 한옥마을 내 전동기 운행 전면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한복다울마당 심층토론회 개최

전주시가 생활 속 한복 착용 문화 확산과 한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23일 한복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협의체인 한복다울마당 회의를 열고 2018년도 한복착용 문화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심층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다울마당 위원들은 지난해 4차례 실시한 한복문화 활성화 행사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올해 한복문화 행사 추진을 위한 프

그램 구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한복 분야 국비사업 응모방안 등 한복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복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처방안도 나왔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토론회에서 한복에 대한 시민들의 친근감을 높이기 위한 한복진흥행사 추진시 전주시의 이미지 부각 방안, 한복과 체험을 결합한 행사진행, 전통한복과 신한복의 조화 등을 중요한 요소로 삼아줄 것을 요청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